

大學 教養國語 教材의 실태 분석

—教育目標와의 關係에서—

金 鎮 英

(慶熙大 國語國文學科)

교양국어 수업이 실제로 거의 교양국어 教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교재가 갖는 의의는 우리의 예상보다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양국어 교육의 成敗는 교양국어 교재의 짜임과 그 운영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된다.

1. 머리말

대학 교양국어는 대학교육에서 중시되는 교양교육의 일부를 구성하는 교과이자, 교양의 정신에서 볼 때 中核의 地位를 갖는 교과이다. 大學人이 각자 전공하는 학문에 있어서의 전문적 지식인이 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도자적 품성의 도야'와 '전공을 위한 기초교육'에 교양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양국어는 그 道具的 性格이 교양의 본질에 가장 잘 부합된다. 따라서 교양국어의 교육 목표와 교재에 대한 연계적 고찰은 교양국어 교육 자체와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두루 의의 있는 작업이다.

2. 교양국어 교재와 교육 목표

1) 교재가 갖는 의의

교재는 교과의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아무리 교과 교육 목표가 훌륭하게 설정되었다고 해도 교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에서 교재의 뒷받침은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교재는 교과의 교육 목표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교재 내용은 교과의 교육 목표 설정 자체의 적절성 여부를 반증하기도 한다.

대학 교양국어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필수적 교양교육 과목이고, 이를 위하여 편찬된 교양국어 교재는 제1차적인 교과 자료이다. 실제로 교양국어 수업이 거의 교양국어 교재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재가 갖는 의의는 우리의 예상보다도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양국어 교육의 성패는 교양국어 교재의 짜임과 그 운용에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된다.

대학에서의 교양국어 교육이 필수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교양국어 교육의 성

과에 대한 평가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만족보다는 오히려 실망이 매우 큰 부정적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다시 교양국어에 대한 대학 당국과 학생의 인식을 오도하여 교양국어의 단위의 시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했고, 심지어는 교양국어를 아예 폐지한 사례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대학 과정이 160 학점에서 140 학점 이수로 바뀐 이후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을 가릴 것 없이 절대 시간이 태부족임을 다함께 실감하는 현재의 형편에서 잃어버린 국어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서도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과연 이대로의 교양국어 교육으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爾後해도 좋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이같은 현하의 교양국어 경시 및 의태 풍조는 하루속히 분식되어야 하고 막중한 의의를 되살려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양국어 교육 성과를 提高시키는 도리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교재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겠다.

현행 교양국어 교재를 분석하는 의도 역시 실추된 교양국어 교육의 의의를 다시금 최대한 살리기 위한 방안의 수립에 한 뜻을 맡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교양국어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에 유효하고 바람직한 새로운 교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교양국어 교육의 목표와 이루어진 성과 사이의 괴리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는 기왕에도 거듭 수행된 바 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절실하고도 심각한 과제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즉 교육 방법의 개선과 교재의 개선으로 귀결짓고 있다.

사실 이 나라의 앞날을 걸머져야 하는 대학의

주인공인 대학생, 지성인인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바, 국어의 고급한 이해, 구사 능력의 배양은 대학 교양국어가 거의 전적으로 떠맡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 교양국어의 이수 이후에는 의도된 교과 과정상의 국어 교육은 다시 없음을 확실히 인식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고급한 국어의 理解와 創出能力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 결손은 孑孓의 결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이며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됨을 다함께 깨달아야 하겠다. 사람이 자라면 옷도 그에 걸맞게 입어야만 하듯이 대학인의 국어 생활은 응당 대학인답게 심화·확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발전적 전환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대학 교양국어가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좋은 교재가 있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교재 내용과 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좋은 교재일 수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기왕의 교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좋은 교재란 원론적인 예기로 교육 목표의 구현에 가장 잘 부응하는 교재이다. 그렇다면 국어 교육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 교양국어 교육의 목표

교양국어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양국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국어 교육의 목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합당한 내용의 조직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목표나 내용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 방법의 개선 노력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방법이란 교육

- 1) 강용권 외, “대학 교양국어 교재의 분석과 새로운 구성”, 실험대학 연구 보고서, p.253, 문교부, 1979.
- 2) 안병희·김진세, “우리나라 대학국어 교육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인문과학계 연구 보고서 4, 문교부, 1970.
- 강희영·윤홍로, “대학 교양국어 교재의 문제점과 그 시정책에 관한 연구”, 어문학계 연구 보고서 5, 문교부, 1971.
- 고제기·정제완, “대학 교양국어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어학교육, 제5집, 전남대, 1973.
- 박계홍, “대학 국어교육론(I)(II)”, 인문과학논문집, 1.1, 2.6, 충남대, 1974, 1975.
- 강용권 외, 전개서.
- 강신항 외, “대학 교양국어 교재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김철규, “교양국어 교육 평가의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6.2.24, 주제 발표 유인물.

목표와 교육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양국어 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교양국어 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일이며 그 목표에 입각하여 교육 내용을 적절하게 조직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을 위해서 문교부는 국어과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그 안에 국어 교육의 일반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독본 교재는 국정으로 통일하여 제작 공급하고, 고등학교에서만 5종씩의 2종 교과서(검정 교과서)를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고등학교 국어과의 교과 목표와 국어 I(독본), 국어 II(현대문학, 고전문학, 작문, 문법)의 목표를 들어 보기로 한다.³⁾

(1) 교육 목표

중학교의 교육 성과를 발전시키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 ① 말과 글을 통하여 사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른다.
- ②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한다.
- ③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문학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2) 국어 I 목표

- ① 자신의 판단이나 평가를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말하게 한다.
- ② 말하는 이의 판단이나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며 듣게 한다.
- ③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독서량을 늘려 가게 한다.
- ④ 여러 가지 표현법과 구성 원리를 사용하여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 ⑤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 및 국어사의 개략을 이해하고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한다.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한다.

- ⑥ 문학이 문화 유산임을 알고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3) 국어 II 목표

- ① 문학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감상하고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며 인간의 보편적 갈등과 정서를 이해하게 한다.
- ② 표현의 기능을 더욱 세련시켜서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③ 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선인의 문학 세계를 바르게 파악하게 한다.
- ④ 언어 현상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상의 목표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우리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이 이해·표현력의 신장과 언어(국어)·문학(국문학)에 대한 체계적 지식의 습득 및 사고·판단·감상·상상 능력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든 예처럼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교부가 제정한 국어과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에는 문교부가 제정한 국어과 교육 과정이나 교양국어의 목표가 없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국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조차도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86년도 大學 敎養國語 評價報告 卷」에 지적된 문제점을 들어보자.

“전국 111개 대학(교) 중 교양국어의 목표 설정 여부 묻는 질문에 답한 학교는 109개 대학이었다. 이 중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 87개 대학으로 79.8%,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한 대학이 22개교로 20.2%에 달한다. 여기서 20.2%에 달하는 대학들이 교양국어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일정한 목표의 설정도 없이 교양국어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

3)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 pp. 17~22, 1982. 다만 문법의 경우는 현재 검정 교과서에서 제외하여 문교부 저작의 통일된 문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다는 것은 교양국어라는 교과목의 강의가 그만큼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이라면 그 나름의 목적 의식에 따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그 교육 과정의 정당성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실제 많은 대학에서 교양국어 학점의 축소, 시간수의 축소, 대단위 강의의 진행, 담당 교수들의 무관심, 학생들의 기피 현상 등 교양국어의 파행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⁴⁾

기실 교양국어의 파행적 양상이 전적으로 교육 목표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교육 목표의 不備가 몰고올 위험성은 실로 심각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다.

강용권, 정상박 교수는 교양국어의 교육 목표 수립의 重要大한 의의를 강조한 공동 연구에서 ‘대학 교양국어의 일반 목표’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

- ① 기능과 태도 : 교양 있는 생활과 학문의 탐구에 필요한 국어 사용의 기능과 태도를 길러서 효과적이고 품위 있고 세련된 언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 ② 경험과 문제 해결력 :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확충·활용하고 발전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힘을 길러서 사회 발전에 부응하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하게 한다.
- ③ 사고와 정서 : 국어를 통하여 사고력·판단력·인식력·창조력을 함양하고 풍부한 정서와 고귀한 이념을 길러서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과 진실한 지도적 국민이 되게 한다.
- ④ 국어 및 국어 문화에 대한 애호심 : 국어와 국어로 표현된 문화물 값이 사랑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넓고 깊게 하여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주도하게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대학 교양국어의 목표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를 두루 포괄하면서 아울러 지도자가 지녀야 할 품성과 능력을 습득·함양하는 임무까지 부여하여 교양국어가 떠맡아야 할 책무를 대폭 확충해 놓았다. 물론 대학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全人으로서의 포괄적 완성에 있지만 교양국어라는 1개 교과가 이를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교양국어의 목표는 일반 목표로 제시된 것이라 해도 지나치게 확충되는 바람에 오히려 목표의 명료성이 흐려지고만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다. 각 교과목의 독립성은 각 교과만이 갖는 독자성에서 그 存立의 근거를 확실히 얻게 된다고 볼 때 교양국어는 교양국어 고유의 교육 목표가 보다 부각되어야 한다. 만약 개별 교과목의 목표만이 아닌 범교과적 목표가 개별 교과목과 깊이 관련된다면 이는 評價가 가능한 수준에서 구체화하여 다뤄져야 한다. 교육 목표가 목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방만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성격이 분명해지고 과제의 영역도 명확해져서 교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천에 뒤따르는 성과의 평가 작업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 따라서 목표의 구체화는 목표 달성을 위해 一次的으로 요구되는 필수 과제가 된다.

’86년도의 경우 교양국어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87개 대학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50여 개의 항목에 달하였다. 이들 목표를 유형별로 대별해 볼 때,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국어 및 언어에 대한 이해’, ‘문학의 이해’, ‘사고력 및 표현력 신장’, ‘문장력(작문력)’, ‘정서 함양’ 등이 있다. 그 외에 독해력, 도구 과목의 역할, 한자 실력 향상, 문화의 습득 및 계승, 창조 정신 고취 등의 항목이 목표로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록 <표 1> 참조).⁶⁾ 여기에서 보면 교양국어의 목표가 실천적

4) 金烈圭外, 大學 教養國語 評價報告書, pp. 25~26,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6. 12.

5) 강용권 외, 전개서.

6) 金烈圭外, 전개서, pp. 26~27(※ 본고에서 인용하는 모든 통계표는 1986年度 대학 교양국어 평가 보고서에 의거한 것임).

으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동시에 교양국어 교육의 固有目標에 입각한 교과목의 독자성도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교양국어의 목표가 응당 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와 연계성을 갖도록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충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을 고려한다면 대학 교양국어 교육의 목표는 ‘우리 언어(말과 글)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이해·구사 능력의 고도화’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문학의 경우는 그것이 言語 用法의 주요한 한 갈래이자 고급한 구사이므로 당연히 중시해서 다루어야만 한다. 이 점에 대해서 기왕의 한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어·문학 중심의 내용을 담되 그 수준은 현재보다 훨씬 높인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양국어가 대학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것은 아님 이상 각 분야의 기본 개념이나 개선타점 지식의 습득은 타당히 해당 교양 과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양국어의 본무는 어디까지나 언어 교육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특정 분야의 어떤 지식 체계에도 구애받지 않는 가장 보편적인 국어에 기초를 둔 어·문학 중심의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이다.

한 민족의 언어 생활은 곧 그 민족의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이 고도의 문화 수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국민 각 개인의 언어 생활이 더욱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도 대학의 국어 교과는 현대 우리나라의 지도적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언어를 다루는 것이라야 하겠다.”⁷⁾

이상의 입장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보아진다. 대학 교양국어의 목표가 국어의 도구 교과적 성격(타학문의 기초)을 살리고자 한 점과 국어(우리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이해와 구사 능력을 확충하려고 한 점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오늘날 대학 교양국어 교육의 목표는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미 수정·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목표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

인지의 실천적 과제를 기본항과 세목으로 유기적이면서도 체계 있게 설정하는 작업이 깊게 있게 진척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3. 교재의 실태 분석

각 대학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양국어 교재는 크게 독본과 작문의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독본과 작문이 분책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되나 내용 편성은 분책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교재의 편성은 교육 목표와의 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또 교육에서는 비약보다는 탄탄한 단계적 발전을 중시하는 점에서도 고등학교와 대학간에는 연계적 상향 교육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갖도록 수립되어야 하고, 교재도 응당 이를 깊이 고려하여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무시된 교재 편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부록 <표 2> 참조).

교재 분석은 독본과 작문 중에서 일단 독본에 한하여 진행시키고자 한다.

우선 독본(주교재)의 편저자를 보면 교양교재 편찬위, 국어교재연구회, 국문과(연구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 저자로 된 경우는 조사된 106개 교 가운데 2개 교에 불과하다. 이처럼 교재는 학과가 중심이 되어 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경우가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방식은 학과 교수들이 교재 편찬에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衆智를 모을 수 있고 각자의 전공 영역을 살려 심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양국어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거나 사명감이 부족하고 보면 자칫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채로 떼어말기 식이 될 위험에 빠지기 쉽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저서와 같은 功力이 투입되지 못하고 대략 체재를 잡아 유사하게 엮어내는 소홀함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실제로 현행 국어 교재 중에도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없지 않다. 이 점은 특히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전임 교수들이 각기 자기 전공 영역에 관심과 연구를 집중하다보니 성격이

7) 강신항 외, 전거서, pp.6~7.

복합적인 교양국어에는 전공 분야만큼의 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의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 교수가 누구나 전공 분야 교수이기에 앞서 교양국어 교수라는 인식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양상은 크게 호전될 것이다(부록 <표 3> 참조).

다음으로 교재의 출판사 및 출판 연도를 보면 출판사의 경우는 대학 출판부와 일반 출판사가 대략 반반을 점하고 있다. 출판 연도는 당년에 나온 것이 62.5%, 한 해 전에 나온 것이 27.9%로 거의 대부분 매년 아니면 격년 단위로 새롭게 개편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출판사의 경우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규모가 큰 종합대는 거의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반면, 학생수가 적은 단과대에서는 일반 출판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앞으로는 점차 대학 출판부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록 <표 4> 참조).

다음으로 교재의 편형과 면수 현황을 보면 부록 <표 5>와 같다. 이 통계에서 보면 독본 교재는 대략 400 면 내외의 분량으로 엮여져 있다. 400 면 내외의 책이라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분량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는데, 현재 국어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시간 단위로서 이를 충실히 소화하기는 각별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교재의 부분별 과수 현황을 보면 부록 <표 6>과 같다.

한편 독본 교재 안에는 작문, 한문 그리고 기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현황은 부록 <표 7>과 같다.

또한 독본·작문 교재의 편찬시 통합 및 분리의 여부와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의 교과 구성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분석한 통계표는 부록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독본·작문 교재의 분리와 비분리가 대략 6:4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 40% 정도의 대학에서는 통합 교재를 알 수 있다. 또한 통합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본 위주에다가 작문을 약간 포용하는 교과 구성이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독본·작문의 병행 구성이나 작문 위주 독본 포용의 구성 비율은 각각 10% 남짓을 차지하고 있

을 뿐이다.

이러한 構成比는 독본·작문 교재를 분리하여 편찬하지 않았을 경우 작문 교육은 형식에 그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수행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즉 작문의 교재 내용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반영한다. 이것은 대체로 그러한 대학에서의 교양국어 절대 시간수가 크게 부족한 형편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학 당국의 교양국어 시간 단위의 축소화와 학과의 교재 개발의 부실함이 교양국어 교육을 위축시키는 데 상승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다.

이제 독본 교재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독본의 내용은 대체로 논설류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설에는 어문학에 관한 논설 외에도 타학문 영역, 즉 종교·철학·역사·사회·정치·경제·자연과학·민속 등을 다룬 논설류와 대학과 교양에 관한 논설류들 포괄하고 있다. 85%에 해당하는 독본 교재가 타학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15% 정도는 어문학 내용만으로 교재가 편성되어 있다. 15%에 해당하는 교재가 순전히 어문학 내용만으로 구성된 것은 교양국어가 어문학 중심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철저를 기한 결과라고 하겠다. 필자 역시 앞에서 교양국어의 목표가 국어(말과 글, 문학)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이해·구사 능력의 고도화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교양국어에서 어문학 이외의 내용을 철저히 배제함이 옳다고는 보지 않는다. 기실 교양국어에서 어문학 이외의 타학문 영역은 논설에서만 포함하여 다루어짐이 보통인데 그것이 전체 단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고, 어문학에 관한 내용이 90%를 넘고 있다. 논설항에만 국한해 보면 어문학에 관련된 논설이 60%에 가깝고 타학문에 관한 논설이 40% 남짓이 된다. 그런데 타학문에 관한 논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분야의 전문적 내용이기보다는 교양 차원의 논설이므로 학문의 세계에 입문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라도 기초 교양으로서 이해해야 할 수준의 글이다. 물론 이러한 교양적 내용을 굳이 교양국어

시간에 다루어야 할 것이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무슨 내용에 관련된 것이거나 간에 그것이 전문 학문 분야의 지식 내용으로서가 아니고 논설문의 한 모범 예로서 살핀다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또 논설이 국어 생활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으로 보거나 또 교양국어의 도구 교과적 성격으로 보더라도 지나치게 전문적인 학술 내용이 아닌 한 타학문에 관한 논설을 일정한 정도로 포함하여 다루는 것은 오히려 교양국어의 내용을 豊潤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어학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언어의 문제를 다루는 논설과 국어학 자료를 싣고 있는데, 전체 단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여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를 다루는 글로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제시된 바를 보면 다음 세 가지이다.⁸⁾

- ① 언어의 기능 : 인간 행위의 제 측면에 있어서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을 다루는 글
- ② 국어의 역사·특질 : 언어의 계통적 분류와 유형적 분류에 있어서 국어의 위치를 밝히는 가운데 국어의 형성·발전을 다룬 글
- ③ 한글 표기법의 원리 :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이에 관련된 사상적 배경, 문학사적 위치 및 현행 맞춤법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

이상의 내용에 각각 과제 학습의 자료를 함께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전문학에 관한 사항을 살펴 보면 우선 단원수의 전체 단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남짓이 된다. 수록된 작품을 장르별로 나뉘어 보면 짧은 형식의 시조와 古詩歌 작품 수록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설화·소설과 같은 서사 장르나 수필 장르는 아주 빈약하게 수록되고 있다. 수록상의 간이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시조 문학과 같은 특정 장르에 편중되고 있다 하겠다.

더구나 고전문학은 구비문학과 한문문학, 국문문학이 각각 독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우리 문학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응당 구비문학과 한문문학의 자료를 대폭 확충해서 수록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전문학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우리 문학의 전개와 그 특성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현대문학을 살펴 보면 단원수의 전체 단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로 고전문학보다도 10% 정도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양국어 시간에 제일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현대문학 작품의 감상 및 문학이론이라고 밝힌 설문 조사의 결과와 관련시켜 보더라도 현대문학의 대폭적 수용은 적절하다. 그러나 시·시조·소설·희곡·수필 등에 걸쳐 두루 근대문학에 해당되는 시기의 작품에 치중되어 있다. 현대문학(동시대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문제작과 젊은 세대의 작품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은 교재의 진부함을 가져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문학 비평문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 작품의 분석적 享受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의 문학 작품 수록 여부에 관한 통계는 부록 <표 9>와 같다.

4. 맺는 말

이상 거론한 바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양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어(말과 글, 문학)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이해·구사 능력의 고도화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양국어 교재도 어·문학 중심의 내용을 담되 그 수준을 현재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

둘째로 교양국어 교재는 주로 학과가 중심이 되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바 이는 중지를 모을 수 있고 각자의 전공 분야를 살려 심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8) 강신항 외, 전계서, p.11.

체로 떼어말기 식의 소혼함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 교수는 모두가 자기 전공 분야의 교수이기에 앞서 교양국어 교수라는 인식과 실천이 요구된다. 또 좋은 교재의 개발을 위해서도 학교 단위의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대학 교양국어 연구회'와 같은 모임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축적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거기에서 교육 목표, 교과와 내용과 조직, 적정한 이수 단위, 교수 방법 등과 더불어 이상적인 교과서 모형의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세째로 독본 교재의 분량은 400면 내외로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교양국어 시간수로는 충실히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교재 분량을 이수 시간에 맞게 줄여서 교육 내용을 빈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히려 내실 있는 운용과 교재 내용의 확충으로 교양국어 이수 단위의 증가가 절실함을 학생과 학교 당국이 인식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네째로 독본과 작문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40%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작문 교육은 위축되어 요식 행위에 그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교재의 개발과 실천으로 교양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독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 중에는 특정 분야나 특정 장르의 작품에 편중된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고, 또 현대문학의 경우 동시대 문학이 거의 배제되어 교재의 진부함을 가져오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오늘날의 문학을 다수 수용하여 교재 자체도 신선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편함이 요청된다.

여섯째로 현행 교재 내용에서 가장 不備한 점은 話法(speech)의 이론과 실습 교재이다. 이것은 作文 이론 및 실습과 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서 다루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관한 교재 개발이 도외시되고 있는 현 실정은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

附 錄

(표 1) 교양국어의 교육 목표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종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종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국어 및 언어의 바른 이해	6	16.2	5	20.8	3	20.0	14	18.4	17	18.3	16	22.5	1	10.0	34	19.5	48	19.2
문학의 이해	7	18.9	6	25.0	3	20.0	16	21.1	17	18.3	12	16.9	1	10.0	30	17.2	46	18.4
사고력 및 표현력 신장	7	18.9	2	8.3	2	13.3	11	14.5	10	10.8	14	19.7	2	20.0	26	14.9	37	14.8
문장력(작문력)	2	5.4	3	12.5	1	6.7	6	7.9	14	15.1	5	7.0	2	20.0	21	12.1	27	10.8
정서 함양	5	13.5	2	8.3	3	20.0	10	13.2	10	10.8	6	8.5			16	9.2	26	10.4
독해력	1	2.7	1	4.2			2	2.6	12	12.9	5	7.0	2	20.0	19	10.9	21	8.4
도구 과목의 역할	2	5.4	1	4.2	1	6.7	4	5.3	7	7.5	3	4.2			10	5.7	14	5.6
한자 실력 향상	3	8.1	2	8.3			5	6.6	4	4.3	4	5.6	1	10.0	9	5.2	14	5.6
문화의 습득 및 계승	2	5.4	1	4.2	2	13.3	5	6.6			5	7.0	1	10.0	6	3.4	11	4.4
창조 정신 고취	2	5.4	1	4.2			3	3.9	2	2.2	1	1.4			3	1.7	6	2.4
계	37	100	24	100	15	100	76	100	93	100	71	100	10	100	174	100	250	100

〈표 2〉 교재 편찬시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고려 여부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중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중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고려해 편성	10	90.9	6	54.5	6	60.0	22	68.8	25	75.8	21	75.0	2	66.7	48	75.0	70	72.9
비 고려	1	9.1	5	45.5	4	40.0	10	31.3	8	24.2	7	25.0	1	33.3	16	25.0	26	27.1
계	11	100	11	100	10	100	32	100	33	100	28	100	3	100	64	100	96	100

〈표 3〉 교양국어 주교재 편·저자 현황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중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중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편 자	교양교재편찬위	10	90.9	2	18.2	4	40.0	16	50.0	22	62.9	19	57.6	2	33.3	43	58.1	81	76.4
	국어교재편찬회			2	18.2	1	10.0	3	9.4	4	11.4					4	5.4	7	6.6
	국어교재편찬실									1	2.9			1	16.7	2	2.7	2	1.9
	국어교재연구회	1	9.1	2	18.2	1	10.0	4	12.5	2	5.7	3	9.1	3	50.0	8	10.8	12	11.3
	국 문 과			3	27.3	1	10.0	4	12.5	1	2.9	4	12.1			5	6.8	9	8.5
	국문과연구실					2	20.0	2	6.3	4	11.4	5	15.2			9	12.2	11	10.4
	교양과정연구실			1	9.1	1	10.0	2	6.3									10	9.4
	어문학회									1	2.9					1	1.4	1	0.9
기 타											1	3			1	1.4	1	0.9	
저 자			1	9.1			1	3.1			1	3			1	1.4	2	1.9	
계	11	100	11	100	10	100	32	100	35	100	33	100	6	100	74	100	106	100	

〈표 4〉 교양국어 주교재 출판사 및 출판 연도 현황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중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중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출판사	대학출판부	8	72.7	2	18.2			10	32.3	30	88.2	11	33.3	3	50	44	60.3	54	51.9
	일반출판사	3	27.3	9	81.8	9	100	21	67.7	4	11.8	22	66.7	3	50	29	39.7	50	48.1
	계	11	100	11	100	9	100	31	100	34	100	33	100	6	100	73	100	104	100.0
출판연도	82년 이전					1	11.1	1	3.2	2	5.9					2	2.7	3	2.9
	83년					1	11.1	1	3.2			1	3.0			1	1.4	2	1.9
	84년					1	11.1	1	3.2	3	8.8	1	3.0			4	5.5	5	4.8
	85년	2	18.2	2	18.2	4	44.4	8	25.8	8	23.5	9	27.3	4	66.7	21	28.8	29	27.9
	86년	9	81.8	9	81.8	2	22.2	20	64.5	21	61.8	22	66.7	2	33.3	45	61.6	65	62.5
	계	11	100	11	100	9	100	31	100	34	100	33	100	6	100	73	100	104	100

〈표 5〉 교양국어 주교재 판철 및 면수 현황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종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종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관	국 관	2 22.2	3 37.5	4 57.1	9 37.5	6 20.7	17 63.0	1 20.0	24 39.3	33 38.8
	신 국 관	3 33.3	1 12.5	1 14.3	5 20.8	5 17.2	2 7.4	1 20.0	8 13.1	13 15.3
	4 × 6	3 33.3	4 50.0	1 14.3	8 33.3	9 31.0	4 14.8	3 60.0	16 26.2	24 28.2
	크라운관	1 11.1		1 14.3	2 8.3	8 27.6	4 14.8		12 19.7	14 16.5
	뉴크라운관					1 3.4			1 1.6	1 1.0
	계	9 100	8 100	7 100	24 100	29 100	27 100	5 100	61 100	85 100
면	299 이하	1 11.1	1 9.1	1 11.1	3 10.3	1 3.0	1 3.2	1 20.0	3 4.3	6 6.1
	300~399	3 33.3	7 63.6	6 66.7	16 55.2	9 27.3	7 22.6	2 40.0	18 26.1	34 34.7
	400~499	4 44.4	3 27.3	2 22.2	9 31.0	20 60.7	16 51.6	1 20.0	37 52.6	46 46.9
	500~599	1 11.1			1 3.4	3 9.1	5 16.1		8 11.6	9 9.2
	600 이상						2 6.5	1 20.0	3 4.3	3 3.1
	계	9 100	11 100	9 100	29 100	33 100	31 100	5 100	69 100	98 100
수	최 고	620	484	407	620	527	619	634	634	634
	최 소	228	242	263	228	268	258	116	116	116
	평 균	407.8	374.2	346.3	363.1	415.8	437.7	391.8	423.9	393.5

〈표 6〉 교양국어 교재의 부문별 과수 현황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종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종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관	4 이하	1 10.0		3 37.5	4 13.8	2 5.9	2 6.3		4 5.6	8 7.9
	5~9	4 40.0	6 54.5	2 25.0	12 14.4	7 20.6	12 37.5	5 83.3	24 33.3	36 35.6
	10~14	3 30.0	5 45.5	2 25.0	10 34.5	13 38.2	8 25.0		21 29.2	31 30.7
	15~19	2 20.0			2 6.9	8 23.5	9 28.1	1 16.7	18 25.0	20 19.8
	20~24					3 8.8	1 3.1		4 5.6	4 4.0
	25~29			1 12.5	1 3.4	1 2.9			1 1.4	2 2.0
	30 이상									
	계	10 100	11 100	8 100	29 100	34 100	32 100	6 100	72 100	101 100
설	최 고	17	13	25	25	27	20	16	27	27
	최 소	2	5	2	2	1	4	6	1	1
	평 균	9.4	9.2	8.8	9.1	12.6	11.3	9.5	11.8	11.0
국	4 이하	2 18.2	3 27.3		5 16.2	13 46.4	14 43.8		27 41.5	32 33.3
	5~9	5 45.5	8 72.7	6 66.7	19 61.3	10 36.7	15 46.9	5 100	30 46.2	49 51.0
	10~14	1 9.1		2 22.2	3 9.7	5 17.9	2 6.3		7 10.8	10 10.4
	15~19	2 18.2		1 11.1	3 9.7		1 3.1		1 1.5	4 4.2
	20~24									
	25~29	1 9.1			1 3.2					1 1.0
	30 이상									
	계	11 100	11 100	9 100	31 100	28 100	32 100	5 100	65 100	96 100

학	최 고	25	9	16	25	14	15	6	15	25
	최 소	3	2	5	2	1	1	5	1	1
	평 균	9.6	5	8.3	7.6	5.3	4.8	5.8	5.1	5.9
고 전 반	4 이하	2 20.0	1 9.1	5 50.0	8 25.8	4 11.8	2 6.1	1 16.7	7 9.6	15 14.4
	5~9	3 30.0	1 9.1	2 20.0	6 19.4	10 29.4	10 30.3	3 50.0	23 31.5	29 27.9
	10~14		7 63.6	1 10.0	8 25.8	11 32.4	9 27.3	2 33.3	22 30.1	30 28.8
	15~19	1 10.0	1 9.1	2 20.0	4 12.9	2 5.9	6 18.2		8 11.0	12 11.5
	20~24	3 30.0	1 9.1		4 12.9	5 14.7	4 12.1		9 12.3	13 12.5
	25~29					1 2.9			1 1.4	1 1.0
	30 이상	1 10.0			1 3.2	1 2.9	2 6.1		3 4.1	4 3.8
	계	10 100	11 100	10 100	31 100	34 100	33 100	6 100	73 100	104 100
학	최 고	47	22	16	47	20	35	11		
	최 소	2	3	1	1	1	3	1		
	평 균	15.3	12.3	7.3	11.6	12.2	13.8	7.5	12.5	12.3
원 대 반	4 이하	1 10.0		3 30.0	4 13.3	5 14.7	2 6.1	1 16.7	8 11.0	12 11.7
	5~9	2 20.0	1 10.0	2 20.0	5 16.7	2 5.9	3 9.1	3 50.0	8 11.0	13 12.6
	10~14		1 10.0		1 3.3	1 2.9			1 1.4	2 1.9
	15~19	2 20.0	1 10.0	1 10.0	4 13.3	4 11.8	2 6.1	1 16.7	7 9.5	11 10.7
	20~24		2 20.0	1 10.0	3 10.0	2 5.9	5 15.2		7 9.6	10 9.7
	25~29	3 30.0	3 30.0	2 20.0	8 26.7	4 11.8	11 33.3		15 20.5	23 22.3
	30 이상	2 20.0	2 20.0	1 10.0	5 16.7	16 47.1	10 30.3	1 16.7	27 37.0	32 31.1
	계	10 100	10 100	10 100	30 100	34 100	33 100	6 100	73 100	100 100
학	최 고	37	37	34	37	62	46	45	62	62
	최 소	2	5	2	2	3	3	1	1	1
	평 균	19.8	22.9	14.6	19.1	26.5	26.4	34.8	25.5	23.7

〈표 7〉 교양국어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작문, 한문, 기타 내용 현황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종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종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작 문	4 이하	2 100		5 83.3	7 77.8	3 37.5	5 62.5	2 100	10 55.5	17 63.0
	5~9		1 100	1 16.7	2 22.2	3 37.5	2 25.0		5 27.8	7 25.9
	10~14					1 12.5			1 5.6	1 3.7
	15~19									
	20~24									
	25~29					1 12.5	1 12.5		2 11.1	2 7.4
	30 이상									
계	2 100	1 100	6 100	9 100	8 100	8 100	2 100	18 100	27 100	
한	최 고	3	9	5	9	26	27	3	27	27
	최 소	3	9	1	1	1	2	1	1	1
	평 균	3	9	2.7	3.4	7.9	6.3	2	6.5	5.5
학	4 이하		1 50.0		1 33.3	2 2.5	11 84.6	2 100	15 65.2	16 61.5
	5~9		1 50.0	1 100	2 66.7	3 37.5			3 13.0	5 19.2
	10~14						1 7.7		1 4.3	1 3.8
	15~19					3 37.5	1 7.7		4 17.4	4 15.4

관	20~24									
	25~29									
	30 이상									
	계		2 100	1 100	3 100	8 100	13 100	2 100	23 100	26 100
최 고	최 소		11	8	11	18	16	4	18	18
	최 소		1	8	1	1	1	2	1	1
평 균			6	8	6.7	9.3	3.6	3	5.5	5.7
기	4 이하					6 100	5 71.4		11 78.6	11 64.7
	5~9		1 100	1 100	2 66.7		1 14.3		1 7.1	3 17.6
	10~14	1 100			1 33.3					1 5.9
	15~19						1 14.3		1 7.1	1 5.9
	20~24									
	25~29									
	30 이상							1 100	1 7.1	1 5.9
계		1 100	1 100	1 100	3 100	6 100	7 100	1 100	14 100	17 100
타	최 고	12	9	8	12	4	15	55	55	55
	최 소	12	9	8	8	1	1	55	1	1
	평 균	12	9	8	9.7	2.7	4.4	55	7.3	7.7

〈표 8〉 독본, 작문 교재 분리 여부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건 체										
	종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종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분 리 여 부	분 리	10	90.9	7	63.6	2	18.2	19	57.6	26	76.5	18	52.9	3	37.5	47	61.8	66	60.6
	비 분 리	1	9.1	4	36.4	9	81.8	14	42.4	8	23.5	16	47.1	5	62.5	29	38.2	43	39.4
	계	11	100	11	100	11	100	33	100	34	100	34	100	8	100	76	100	109	100
비 분 리 우 교 과 구 성	독본, 작문 병행			1	25.0	1	11.1	2	14.3	1	12.5	2	14.3			3	12.0	5	12.8
	독본 위주 작문 위주	1	100	2	50.0	8	88.9	11	78.6	7	87.5	8	57.1	3	100	18	72.0	29	74.4
	작문 위주 독본 위주											4	28.6			4	16.0	4	10.3
	기 타			1	25.0			1	7.1									1	2.6
계	1	100	4	100	9	100	14	100	8	100	14	100	3	100	25	100	39	100	

〈표 9〉 독본 교재 속 최근 문학 작품 수록 여부

구	분	국 · 공 립				사 립				전 체
		종합대	단과대	교육대	소 계	종합대	단과대	신학대	소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수 비 여 부	수	8 72.7	8 72.7	4 36.4	20 60.6	14 41.2	16 47.1	5 62.5	35 46.1	55 50.5
	비	3 27.3	3 27.3	7 63.6	13 39.4	20 58.8	18 52.9	3 37.5	41 53.9	54 49.5
	계	11 100	11 100	11 100	33 100	34 100	34 100	8 100	76 100	109 100
미 수 부 의 상 관 연 성	30년							1 33.3	1 2.5	2 3.8
	40년			2 28.6	2 16.7	2 10.5			2 5.0	4 7.7
	45년		1 33.3	1 14.3	2 16.7	1 5.3	1 5.6		2 5.0	4 7.7
	50년			3 42.9	3 25.0	6 31.6	5 27.8	2 66.7	13 32.5	16 30.8
	55년						1 5.6		1 2.5	
	60년	1 50.0	2 66.7		3 25.0	8 42.1	6 33.3		14 35.0	17 32.7
	70년	1 50.0			1 8.3	1 5.3	5 27.8		6 15.0	7 13.5
	80년			1 14.3	1 8.3	1 5.3			1 2.5	2 3.8
	계	2 100	3 100	7 100	12 100	19 100	18 100	3 100	40 100	52 100